

지속적 유대 형성을 위한 AI 기반 반려동물 추모 서비스 디자인 전략 연구

Design Strategies for AI-Based Pet Memorial Services to Foster Continuing Bonds

주 저 자 : 진아문 (Jin, Ya Wen) 동의대학교 디자인조형학과 박사과정

교 신 저 자 : 강재철 (Kang, Jae Cheol) 동의대학교 예술디자인체육대학 디자인조형학과
ykoh@deu.ac.kr

<https://doi.org/10.46248/kidrs.2026.2.989>

접수일 2026. 05. 09. / 심사완료일 2026. 05. 29. / 게재확정일 2026. 06. 08. / 게재일 2026. 06. 30.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pose AI-based emotional memorial design strategies for pet owners who experience pet loss.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case analysis, this study examines pet loss, grief recovery, emotional design, AI interaction, and existing pet memorial services. On this basis, it proposes AI emotional memorial design strategies across four dimensions: emotional elicitation, emotional regulation, continuing bonds, and meaning reconstruction. The findings suggest that AI-based memorial design should move beyond simple memory preservation and develop into a dynamic service that supports emotional care and relational continuity.

Keyword

Pet Loss(반려동물 상실), Artificial Intelligence(인공지능), Emotional Memorial Design(감성 추모디자인), Pet Memorial Service(반려동물 추모 서비스), Continuing Bonds(지속적 유대)

요약

본 연구는 반려동물 상실을 경험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AI 기반 감성 추모디자인 전략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상실, 애도 회복, 감성디자인, AI 상호작용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기존 반려동물 추모 서비스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감정 환기, 정서 조절, 지속적 유대, 의미 재구성의 네 차원에서 AI 감성 추모디자인 전략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AI 기반 추모디자인은 단순한 기억 보존을 넘어 정서적 지원과 관계 지속을 포함하는 동적 서비스로 발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목적 및 방법

2. 선행연구

- 2-1. 반려동물 상실과 애도 경험
- 2-2. 애도 과정과 정서 회복
- 2-3. 반려동물 추모 서비스와 AI

3. 반려동물 보호자 중심의 추모디자인 분석

- 3-1. 사례 대상 및 분석 방법
- 3-2. 정서 경험과 추모 요구

3-3. 사용자 경험 특성과 디자인 핵심 요소

4. AI 감성화 추모디자인 전략

- 4-1. 감정 환기
- 4-2. 정서 조절
- 4-3. 지속적 유대
- 4-4. 의미 재구성

5.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반려동물이 가정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은 친밀한 관계 구조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져 왔다. 많은 도시 거주자들에게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반의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리듬에 함께 참여하고, 정서 조절과 자기 정체성 형성에도 일정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 오랜 기간 형성되어 온 관계가 갑작스럽게 단절되었을 때 나타나는 복합적인 반응에 가깝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호자는 반려동물의 죽음 이후 슬픔, 불면, 자책, 고립감, 사회적 회피와 같은 반응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반응은 일 반적인 애도 경험과 공통성을 지니는 동시에 사회적 인정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더 쉽게 억압되거나 간과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추모 행위는 점차 반려동물 보호자가 기억을 정리하고, 관계 감각을 유지하며, 정서를 완화하는 중요한 경로로 자리 잡고 있다. 현실에서의 추모 방식에는 사진 보관, 유골 안치, 추모 장신구, 추모 앨범, 작별 의식 등이 포함되며, 디지털 환경에서는 온라인 추모 페이지, 영상 아카이빙, 소셜 미디어 추모 게시물, 생성형 이미지 서비스 등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들은 기억의 가시성을 연장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곧바로 충분한 경험적 지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서비스가 여전히 전시와 저장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지속적인 상호작용, 정서적 피드백, 개인화된 사용 리듬 조절이 부족하여 상실 이후 반복되는 감정 변화와 관계 지속의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생성형 AI, 감성 컴퓨팅, 멀티모달 인식, 지능형 상호작용의 발전에 따라 추모 서비스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AI는 이미지, 음성, 텍스트 생성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 수준에서 정서 상태를 인식하고, 기억 자료를 조직하며, 동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추모 서비스는 이제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것"에서 나아가 "기억을 조직하고, 감정에 반응하며, 관계의 지속감을 유지하는" 과정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되고 있다. Wang(2025)의 연구는 이미 멀티모달 감정 인식, 가상 반려동물의 행동 피드백, 정서 회복 경로를 지능형 반려동물 추모 시스템에 통합함으로써,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보다 장기적이고 개인화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¹⁾. 동시에 생성형 AI 기반 반려동물 추모

서비스 관련 연구에서도, 추모 서비스는 단지 기술적 실재감 구현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되며, 치유 경로, 윤리적 경계, 사용자 감정의 리듬을 전체 설계에 함께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남현아·김승현, 2025)²⁾. 본 연구는 반려동물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 상실을 경험한 이후의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초점을 맞춘다. 연구 목적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반려동물 상실 이후 보호자가 경험하는 핵심 정서 경험과 추모 요구를 정리한다. 둘째, 현재의 반려동물 추모 서비스 및 AI 관련 설계가 사용자 경험 차원에서 보이는 특징과 한계를 분석한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를 위한 AI 감성화 추모디자인 전략을 제안한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하되, 문헌분석을 병행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연구 방법은 세 단계로 구분된다. 첫째, 반려동물 상실, 애도 경험, 지속적 유대, 의미 재구성, 감성디자인, AI 상호작용, 디지털 추모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이론적 기반과 분석 차원을 명확히 하였다. 반려동물 추모 서비스에 관한 기존 연구는 생성형 AI 추모 시스템의 핵심이 단순한 콘텐츠 생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도 과정의 순환, 기억의 확장, 윤리적 안전성을 중심으로 서비스 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능형 반려동물 추모 시스템 연구는 멀티모달 감정 인식, 가상 행동 피드백, 정서 회복 경로가 보호자에게 장기적이고 개인화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둘째, 현실에서 나타나는 반려동물 추모 관련 사례를 선별하고 유형화하였다. 사례가 단지 논문 구상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세 가지 유형의 사례 출처를 함께 포함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개념적 또는 시스템적 사례로, 학계가 지능형 추모 서비스를 어떠한 설계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실제로 공개 운영되고 있는 반려동물 추모 플랫폼과 애도 지원 페이지로, 현실 서비스에서 이미 구현되고 있는 기능과 표현 방식을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은 AI 상호작용형 애플리케이션 또는 통합형 추모 서비스로, SIG가 추모 서비스에 개입한 이후

System Based on Affective Computing", HCI 2025, LNCS 15768, 2025, 290-307.

2) 남현아, 김승현. (2025). 생성형 AI 기반 반려동물 추모 서비스 디자인 연구. 예술디자인학연구, 28, 78-88.

1) Wang, X., "Design of an Intelligent Pet Memorial

상호작용, 피드백, 관계 지속 측면에서 어떠한 구체적 특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 차원에서는 서비스 목적, 주요 기능, 상호작용 방식, 정서 지원 형식, 관계 지속 매커니즘, 의미 표현 방식의 여섯 가지 측면에서 사례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사례분석은 단순한 사례 제시에 그치지 않고, 디자인 핵심 요소를 도출하고 디자인 전략을 구성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다.

2. 선행연구

2-1. 반려동물 상실과 애도 경험

반려동물 상실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그 감정 경험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데 있다. Archer(1997)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이유가 단지 반려동물이 귀엽거나 동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보았다. 오히려 반려동물은 이미 인간의 일상적 정서 구조 속에 깊이 편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반려동물의 죽음이 가져오는 영향은 가벼운 불편감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친밀한 관계가 단절된 이후 나타나는 애도 경험에 더 가깝다. Packman 등(2014)의 연구도 이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들은 반려동물 상실 이후 나타나는 지속적 유다가 단순히 놓아주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이 심리적으로 적응하고 관계를 재구성해 나가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반려동물 상실 경험은 또한 고유한 특수성을 지닌다. 첫째, 이러한 애도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은 주변의 가벼운 시선이나 축소된 반응 때문에 자신의 슬픔을 억누르게 된다. 둘째, 반려동물과 인간의 관계는 일상생활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잃은 이후에는 생활공간, 생활 리듬, 그리고 정서적 관성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셋째,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상실 이후 사진을 정리하거나 유품을 보관하고, 온라인 추모를 하거나 의례적 기념 행위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관계의 지속감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 상실 상황에서 기념 행위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Stephens et al., 2011)³⁾.

3) Stephens, N., Hill, R. P., & Bergman, K., "Symbolic memorialization after the death of a companion animal",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이와 같이 반려동물 상실은 일반적인 의미의 '잃음'이 아니다. 그것은 애착, 생활 질서, 감정 표현, 그리고 관계의 지속이 동시에 얽혀 있는 복합적 경험이다. 이는 또한 반려동물 추모디자인이 반드시 인간의 경험에서 출발해야 하며, 단순히 사물을 담아 두는 기념 용기의 설계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2-2. 애도과정과 정서 회복

애도 과정에 관한 고전적 연구는 일반적으로 단계 이론, 과업 이론, 그리고 의미 재구성 이론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어 왔다. Kübler-Ross(1969)가 제시한 5단계 이론은 상실 이후 개인의 정서 변화를 충격, 부정, 분노, 우울, 수용으로 요약하였다⁴⁾. 이 모델은 기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지만, 반려동물 보호자가 상실 이후 경험할 수 있는 정서적 변동을 이해하는 데 여전히 중요한 참고 틀을 제공한다.

그러나 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애도가 선형적인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동적 조정 과정이라는 점을 더욱 강조한다. Folkman과 Moskowitz(2000)는 개인이 중대한 상실을 경험할 때 단지 부정적 정서만 겪는 것이 아니라, 회상, 인지적 재구성, 의미 탐색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균형을 형성해 간다고 보았다⁵⁾. Neimeyer(2001)는 애도 회복의 핵심이 단순히 고통을 줄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실의 의미를 다시 이해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⁶⁾. 다시 말해, 사람은 반드시 한 관계를 '완전히 놓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더 중요한 것은 그 관계를 계속해서 삶 속에 의미 있게 자리 잡게 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일이다.

이 점은 반려동물 추모 서비스의 설계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만약 추모가 단지 '자료를 보존하는 행위'로만 이해된다면, 서비스는 정보 보존의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추모를 애도 조정 과정에서의 지원적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설계는 사용자가 각기 다른 단계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변동, 회상 욕구, 유대 지속

64(3),2011.

4) Kübler-Ross, E. 《On Death and Dying》, Macmillan, 1969.

5) Folkman, S., & Moskowitz, J. T., "Positive affect and coping", American Psychologist, 55(6), 2000, Information Society, 29(3), 152-163.

6) Neimeyer, R. A., 《Meaning Reconstruction and the Experience of Los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1.

의 바람, 그리고 의미 정리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Wang(2025)이 제안한 '정서 회복 경로' 모델은 바로 이러한 관점을 반영한다. 이 모델은 상실 이후의 정서 변화와 상호작용 시스템의 피드백 리듬을 대응시킴으로써, 지능형 추모 서비스가 회복 과정의 관점에서 설계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3. 반려동물 추모 서비스와 AI

현재 반려동물 추모 서비스는 대체로 실체형 추모, 디지털 추모, 그리고 지능형 상호작용 추모의 세 가지 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체형 추모는 주로 유골함, 추모 장신구, 유품 보존, 추모 오브제 등을 포함한다. 디지털 추모는 온라인 추모 페이지, 디지털 앨범, 추모 텍스트, 소셜미디어 추모 게시, 가상공간 전시 등을 포함한다. 실체형 추모에 비해 디지털 추모는 기억 자료가 더 풍부하고, 접근성이 높으며, 표현 방식이 더 유연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상호작용성이 약하고, 피드백 방식이 단조로우며, 장기적 지원 능력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분명하다(Brubaker et al., 2013; Gibbs et al., 2015)⁷⁾).

AI의 도입은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켰다. 생성형 AI는 추모 자료를 더 이상 수동적으로 보존하는 대상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조직하고, 재서사화하며, 개인화된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게 만들었다. 감성 컴퓨팅은 시스템이 일정 수준의 감정 인식과 피드백 능력을 갖추도록 하였다. 남현아·김승현(2025)은 생성형 AI 기반 반려동물 추모 서비스 연구에서, 반려동물 추모 서비스는 사용자의 치유 순환을 중심으로 기능이 구성되어야 하며, 동시에 사회적 지지, 기억 확장, 윤리적 안전성을 함께 중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Wang(2025)은 다중모달 감정 인식, 가상 반려동물의 행동 피드백, 그리고 정서 회복 경로를 지능형 추모 시스템의 세 가지 핵심 모듈로 보았으며, 이들이 함께 장기적 정서 지원의 기반을 이룬다고 보았다.

또한 디자인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감성디자인은 단지 제품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용 과정에서 대상이 어떻게 지각, 감정, 의미 차원의 경험을 유발하는가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Norman, 2004)⁹⁾. Barrett(2009)의 구성된 정서 이론 역시 감정이 고정된 결과물이 아니라, 지각, 경험¹⁰⁾, 해석의 과정 속에서 계속 생성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AI 추모 서비스의 설계 초점은 단순한 묘사나 고도의 재현에 두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사용자가 안전하게 기억 속으로 들어가고, 적절한 수준에서 감정을 표현하며, 관계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의미를 다시 조직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두어야 한다.

3. 보호자 중심의 추모디자인 분석

3-1. 사례 대상 및 분석 방법

연구의 현실성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본문의 사례분석은 개념적 논문에만 한정되지 않고, "학술연구에서 제시된 시스템 사례"와 "현실에서 이미 형성된 반려동물 추모 서비스 유형"을 결합하여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접근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학술 사례는 비교적 완전한 시스템 구조, 디자인 경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현실의 서비스 유형은 현재 반려동물 추모 서비스가 실제 사용 장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이 둘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분석이 단순한 구상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파편적인 서비스 현상만을 근거로 결론을 도출하는 한계도 줄일 수 있다.

사례 선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 첫째, 반려동물 추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일 것, 둘째, 온라인에서 주요 기능과 서비스 구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셋째, 기억 보존, 정서 지원, 상호작용성 등 서로 다른 디자인 특성을 비교할 수 있을 것, 넷째, 본 연구의 목적상 보호자의 정서 경험과 관계 지속 요구를 분석하는 데 적합할 것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사례는 전체 반려동물 추모 서비스 시장을 대표하기보다는, 유형별 디자인 특성을 비교하기 위한 분석 사례로 한정된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대표적 사례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전시형 추모 서비스이다. 이 유형은 온라인 추모 페이지, 디지털 앨범, 추모 텍스트, 반려동물 이야기 보존

7) Brubaker, J. R., Hayes, G. R., & Dourish, P., "Beyond the grave", The Information Society, 29(3), 2013, 152-163.

8) Gibbs, M., Meese, J., Arnold, M., Nansen, B., & Carter, M., "Funeral and Instagram",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18(3), 2015, 255-268.

9) Norman, D. A., 《Emotional Design》, Basic Books, 2004.

10) Barrett, L. F., "Constructed emotion theory", Emotion Review, 1(1), 2009.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기억의 보존과 감정 표현을 핵심으로 한다. 두 번째는 지원형 추모 서비스이다. 이 유형은 추모 전시 기능에 더해 커뮤니티 교류, 애도 지원, 추모 의식, 공유 서사 등의 기능을 포함함으로써, 추모가 단순한 자료 보존에 머무르지 않고 일정한 동반과 지지의 성격을 갖도록 한다. 세 번째는 상호작용형 추모 서비스이다. 이 유형은 생성형 AI, 감성 컴퓨팅, 가상 반려동물, 대화형 피드백, 행동 시뮬레이션 등의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추모 서비스를 수동적 열람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동적 상호작용의 형태로 발전시킨다. 현재 반려동물 추모 서비스의 유형적 차이와 각 유형의 디자인 중점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서비스 기능과 상호작용 방식의 차이에 따라 관련 사례를 전시형, 지원형, 상호작용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사례 유형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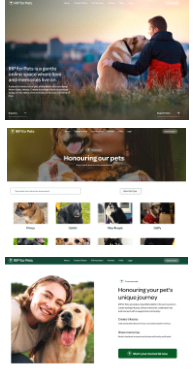
사례 유형	주요 특징	대표 내용	분석 중점
전시형 추모 서비스	추모 페이지, 사진, 소개, 추모글을 중심으로 구성됨	디지털 앨범, 추모 텍스트, 이야기 보존	기억 보존과 감정 표현
지원형 추모 서비스	애도 지원, 커뮤니티 교류, 공유 서사를 포함함	추모 커뮤니티, 추모 활동, 지원 자원	정서적 지원과 동행 구조
상호작용형 추모 서비스	AI 생성, 가상 반려동물, 동적 피드백을 도입함	대화형 상호작용, 행동 시뮬레이션, 감정 인식	관계 지속과 장기적 상호작용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로 다른 유형의 추모 서비스는 설계의 중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전시형 서비스는 ‘흔적을 남기는 것’을 강조하고, 지원형 서비스는 ‘응답을 얻는 것’을 강조하며, 상호작용형 서비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계속 연결되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반려동물 추모 서비스의 진화가 단순한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추모물’ 중심에서 ‘관계적 서비스’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임을 의미한다.

3-2. 감정 경험과 추모 요구

RIP for Pets는 주로 온라인 추모 페이지의 형태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지속적인 추모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사용자는 반려동물의 사진, 이야기, 생애 정보, 추모 메시지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기록하고 전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모 행위는 일회적인 기억 보존에서 반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디지털 추모 과정으로 확장된다. 이 서비스의 핵심 가치는 복잡한 상호작용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계속해서 기록할 수 있는 기억의 장을 남겨준다는 점에 있다. 사용자 요구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서비스는 우선 ‘흔적을 남기고자 하는’ 요구에 대응하며, 동시에 감정 표현과 관계의 보존에도 일정 부분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RIP for Pets는 AI 상호작용형 서비스라기보다, 온라인 추모 페이지를 중심으로 기억 보존과 감정 표현을 지원하는 전시형 추모 서비스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¹¹⁾.

[표 2] RIP for Pets 사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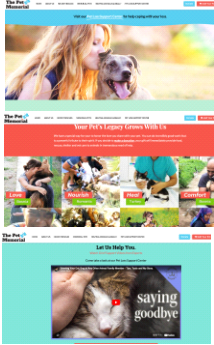
항목	사내용
레명	RIP for Pets
사례 유형	전시형 추모 서비스
주요 특성	온라인 추모 페이지, 사진-이야기-생애 정보 기록, 추모 메시지 전시
주요 대응 요구	기억 보존, 감정 표현, 관계 회고
이미지	

The Pet Memorial은 추모 전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그 위에 애도 지원과 추모 커뮤니티 성격의 내용을 추가한 서비스이다. 단순한 추모 페이지와 비교했을 때, 이 서비스는 ‘기억을 보여주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동반’과 ‘지원’의 기능을 더욱 강조한다. 다시 말해, 반

11) RIP for Pets, <https://www.ripforpets.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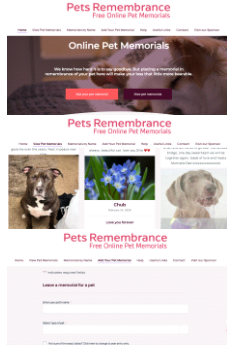
려동물 보호자가 추모 과정에서 기억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서적 반응과 심리적 안정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The Pet Memorial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정보 저장 방식이 아니라, 추모 서비스가 정서 지원 구조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 요구의 측면에서 보면, 이와 같은 플랫폼은 기억 보존의 요구뿐 아니라 슬픔에 대한 지지와 이해받고자 하는 요구에도 비교적 뚜렷하게 대응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3]와 같다¹²⁾.

[표 3] The Pet Memorial 사례 분석

항목	사내용
레명	The Pet Memorial
사례 유형	지원형 추모 서비스
주요 특성	추모 전시 외에 애도 지원, 커뮤니티 상호작용, 공유 서사 내용을 포함함
주요 대응 요구	정서 지원, 감정 표현, 동반 욕구
이미지	

Pets Remembrance 역시 비교적 전형적인 온라인 추모 서비스에 속하지만, 그 중점은 장기 보존과 반복적인 재방문에 더 가까이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온라인 memorial 페이지, 반려동물 정보 제시, 지속적인 열람 경로를 통해 보호자가 시간이 흐른 이후에도 계속해서 추모 공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다. 실물 중심의 추모 방식과 비교할 때, 이러한 디지털 추모 형식은 기억의 '지속적 가시성'을 더욱 강조하며, 반려동물과 관련된 기억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상으로부터 빠르게 사라지지 않도록 한다. 사용자 요구의 측면에서 보면, 이와 같은 서비스는 주로 정서적 의탁, 기억의 지속, 관계에 대한 회고의 요구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4]와 같다¹³⁾.

[표 4] Pets Remembrance 사례 분석

항목	사내용
레명	Pets Remembrance
사례 유형	전시형 추모 서비스
주요 특성	온라인 추모 페이지, 장기 보존, 지속적 재방문 기능 제공
주요 대응 요구	정서적 의탁, 기억의 지속, 관계 회고
이미지	

Still My Dog는 앞서 살펴본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추모를 단순한 정적 보존으로 이해하지 않고 '계속 연결되는 경험'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이 서비스의 핵심 특성은 AI companion과 pet memorial 기능을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사용자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기억을 되돌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 구조는 반려동물 추모가 더 이상 '기억을 남기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관계를 이어가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용자 요구의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상호작용형 서비스는 관계 지속, 일상적 상호작용, 동반감 유지의 요구에 보다 직접적으로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5]와 같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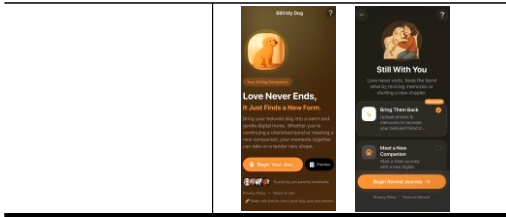
[표 5] Still My Dog 사례 분석

항목	사내용
레명	Still My Dog
사례 유형	상호작용형 추모 서비스
주요 특성	AI 동반 기능과 추모 기능을 결합하여 관계 유지 구조를 형성함
주요 대응 요구	관계 지속, 가벼운 상호작용, 동반 욕구
이미지	

12) The Pet Memorial, <https://www.thepetmemorial.net/>

13) Pets Remembrance, <https://remembrancepets.com/>

14) Still My Dog, <https://stillmydog.com/>



문헌 검토와 사례 분석을 종합하면, 반려동물 보호자의 추모 요구는 분석적 차원에서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상용 서비스 사례만으로 사용자의 모든 경험을 대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애도 경험과 실제 서비스에서 관찰되는 기능적 특성을 함께 검토하여 도출한 디자인 요구의 범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억 보존의 요구이다. 이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미지, 음성, 그리고 함께 한 경험을 남기고자 하는 바람을 의미한다. 둘째, 감정 표현의 요구이다. 이는 추모 행위를 통해 그리움, 아쉬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하는 요구를 말한다. 셋째, 관계 지속의 요구이다. 이는 생명이 끝났다고 해서 반려동물과의 관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관련된다. 넷째, 의미 정리의 요구이다. 이는 추모 과정을 통해 반려동물이 자신의 삶에서 차지했던 위치를 다시 이해하고자 하는 요구를 뜻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반려동물 보호자의 추모 요구

요구 유형	주요 내용	서비스 방안
기억 보존	이미지, 음성, 함께한 경험의 보존	안정적인 기억 보존 방식 제공
감정 표현	그리움, 아쉬움, 감사의 표현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경로 제공
관계 지속	반려동물과의 연결감 유지	지속적인 추모 접점 제공
의미 정리	반려동물의 위치와 가치를 다시 이해함	기억 정리 및 의미 재구성 지원

3-3. 사용자 경험 특성과 디자인 핵심 요소

사례 비교와 요구 분석을 종합해 보면, 반려동물 추모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은 네 가지 뚜렷한 특성을 가진다.

첫째, 추모 서비스는 매우 높은 민감성을 가진다. 사용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언어, 이미지, 소리, 그리고 상호작용 방식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어떤 피드백

도 직접적으로 감정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은 자극의 강도를 세심하게 조절해야 하며, 기계적이거나 경직되거나 지나치게 실재적인 경험을 피해야 한다.

둘째, 추모 서비스는 단계성을 가진다. 사용자는 상실 이후의 서로 다른 시점마다 필요로 하는 지원이 다르다. 초기에는 자극이 낮은 진입 방식이 더 필요하고, 중기에는 응답받고 곁에 함께하는 경험이 더 중요하며, 후기에는 기억 정리와 의미 구성의 필요가 더 커진다. 따라서 단일하고 고정된 서비스 방식은 이러한 요구를 동시에 충족하기 어렵다.

셋째, 추모 서비스는 지속성을 가진다. 반려동물의 상실은 한 번의 추모로 끝나지 않으며, 많은 사용자는 일상 속에서 오랫동안 기억의 자극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 따라서 추모 서비스가 일회성 전시 경험만 제공한다면, 사용자의 정서적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

넷째, 추모 서비스는 개별성을 가진다. 반려동물의 종류, 함께한 기간, 상호작용의 밀도, 그리고 보호자 자신의 정서 구조는 모두 추모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용자에게는 추모 페이지와 영상 보존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다른 사용자에게는 지속적인 경량 상호작용 방식이 더 필요할 수 있다.

반려동물 추모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 특성을 종합해 보면, AI 감성 추모디자인은 단순한 기능의 추가가 아니라 보호자의 정서 경험에 대응하는 구조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즉, 추모 서비스는 기억에 진입하도록 돕고, 정서적 흔들림에 반응하며, 관계의 지속을 지원하고, 나아가 상실 이후의 의미를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AI 감성 추모디자인의 핵심 요소는 감정 촉발, 정서 피드백, 관계 지속, 의미 표현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AI 감성 추모디자인의 핵심 요소

핵심 요소	디자인 내용	사용자 가치
감정 촉발	이미지, 음성, 행동 흔적, 회상 서사	추모와 회상의 상태로 자연스럽게 진입하도록 도움
정서 피드백	위로 메시지, 감정 기록, 사용 리듬 조절	슬픔을 완화하고 정서적 부담을 낮춤
관계 지속	주기적 알림, 가벼운 상호작용, 행동 재현	연결감을 유지하고 단절감을 줄임

의미 표현	추모 앨범, 성장 이야기, 추모 텍스트, 상징적 의례	관계의 가치를 정리하고 이해를 촉진함
-------	-------------------------------	----------------------

4. 시 감성화 추모디자인 전략

앞선 분석을 통해 반려동물 추모 서비스가 단순히 기억을 보존하는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회상의 촉발에서 관계의 정리에 이르는 연속적인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려동물 보호자는 상실 이후 먼저 기억과 감정이 다시 환기되는 경험을 하게 되며, 이어서 뚜렷한 정서적 변동을 겪고, 더 나아가 관계감을 유지하고 상실의 의미를 정리하고자 하는 요구를 갖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시 감성 추모디자인을 감정 환기, 정서 조절, 지속적 유대, 의미 재구성의 네 가지 차원으로 정리하였다. 즉, 이 네 가지 차원은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된 기능 범주가 아니라, 반려동물 보호자의 정서 변화와 추모 요구를 토대로 도출된 디자인 논리라고 할 수 있다.

4-1. 감정 환기

감정 환기 전략의 핵심은 슬픔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비교적 온화하고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기억에 다시 접근하도록 돕는 데 있다. 많은 사용자에게 중요한 문제는 "추모를 할 것인가"보다도, 과도한 자극 없이 사진, 음성, 일상적 흔적, 함께한 경험을 어떻게 다시 마주할 것인가에 있다. 따라서 디자인은 저자극적이고 점진적인 회상 진입 구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제화된 사진 앨범, 성장 궤적, 행동 장면, 음성 기록, 추모 서사 등이 그 방식이 될 수 있다. 또한 시는 흩어진 기억 자료를 정리하고 분류하며 생성하는 역할을 통해, 추모를 단순한 자료 열람이 아닌 구조화된 회상 과정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시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사진, 영상, 음성, 텍스트 기록을 시간, 장소, 행동 유형, 감정 단서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회상 앨범이나 추모 서사의 형태로 재구성할 수 있다.

4-2. 정서 조절

정서 조절 전략은 추모 서비스가 단지 기억을 환기하는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슬픔, 자책, 우울감, 반복적인 정서 변동에 대해 적절히 반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서 말하는 "조절"은 치료를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사용자가 추모 과정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적 지원을 뜻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는 위로 메시지, 저자극 피드백, 감정 기록, 일시 정지 기능, 사용 리듬 조절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시는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입력 내용, 이용 시간, 반복 사용 패턴 등을 바탕으로 정서 상태를 보조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정보 제시 강도와 상호작용 밀도를 조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유연한 추모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감정 기록이나 반복 사용 패턴에서 높은 정서적 부담이 감지될 경우, 시스템은 강한 재현 콘텐츠보다 짧은 위로 문구, 일시 정지 안내, 낮은 자극의 회상 콘텐츠를 우선 제공할 수 있다.

4-3. 지속적 유대

지속적 유대 전략의 목적은 보호자와 반려동물의 관계가 일회적인 작별이나 짧은 추모 행위로 축소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완만한 방식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많은 보호자들이 실제로 힘들어하는 것은 반려동물의 죽음 자체만이 아니라, 익숙했던 관계가 생활 속에서 갑자기 끊어졌다는 감각이다. 따라서 추모 서비스는 관계의 단절을 완화할 수 있는 일상적이고 가벼운 접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추모일 알림, 동적 기억 업데이트, 가벼운 상호작용, 익숙한 행동 흔적의 재현, 동반형 터치포인트 설계 등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시의 가치는 반려동물을 대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관계감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이때 시는 추모일, 산책 시간, 생일, 함께한 계절과 같은 개인화된 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가벼운 알림이나 기억 회상 콘텐츠를 제공하여 일상 속 연결감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다.

4-4. 의미 재구성

의미 재구성 전략은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것을 넘어, 보호자가 반려동물이 자신의 삶에서 지녔던 위치와 가치를 다시 이해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둔다. 보호자에게 추모의 깊은 의미는 단순한 기억 유지에 머무르지 않으며, 반복적인 회상을 통해 이 관계를 정리하고 상실을 삶의 경험 속에 새롭게 배치하는 과정과 연결된다. 따라서 디자인은 추모 앨범 생성, 회상 주제 정리, 성장 이야기 기록, 추모 텍스트 생성, 상징적 의례 지원 등을 통해 사용자가 흩어진 기억과 정서를 보다 완결된 관계 서사로 재조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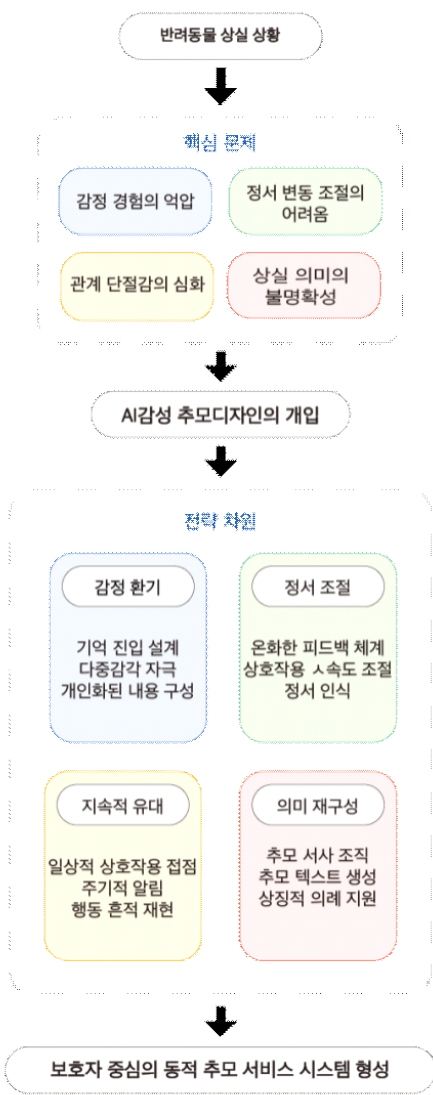
다. 이 차원에서 AI는 사실적 재현의 도구라기보다, 기억 정리와 서사 구성, 의미 이해를 지원하는 보조적 매개로 활용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 AI는 보호자가 입력한 기억 자료와 감정 기록을 바탕으로 추모 편지, 성장 이야기, 관계 연표, 상징적 의례 문구 등을 생성하거나 편집함으로써 의미 재구성 과정을 보조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앞서 분석한 보호자의 정서 변화, 추모 요구 및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AI 감성 추모디자인의 전략 체계를 [표 8]에 정리하였다.

[표 8] AI 감성 추모디자인 전략 체계

핵심 문제	전략 차원	디자인 내용	기대 효과
추모 상태로 진입하기 어려움	감정 환기	사진·음성·텍스트 분류, 회상 앨범 생성	회상과 추모 상태로의 진입 지원
정서 변동이 뚜렷함	정서 조절	감정 기록 기반 저자극 피드백, 사용 중지 안내	슬픔을 완화하고 정서적 부담을 낮춤
관계 단절감이 큼	지속적 유대	추모일 알림, 개인화된 기억 콘텐츠 제공	연결감을 유지하고 단절감을 줄임
상실의 의미를 정리하기 어려움	의미 재구성	추모 편지, 관계 연표, 의미 서사 생성	의미 이해와 관계 가치 재구성 지원

앞선 전략 분석을 바탕으로, 각 디자인 차원 간의 논리적 관계와 사용자 경험 문제와의 대응 방식을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관련 내용을 흐름도로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이 도식은 AI 감성 추모 디자인이 문제 인식에서 전략 도출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전체 경로를 형성하는지를 보다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동시에 그것이 어떻게 반려동물 보호자의 정서적 과정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전개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보호자 중심 AI 감성 추모 서비스 흐름도

5. 결론

5-1. 연구 요약 및 의의

본 연구는 반려동물 상실 상황에 놓인 보호자를 중심으로, 반려동물 추모 서비스가 정적인 기억 보존 방식에서 점차 동적인 정서 지원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보호자의 상실 이후 요구는 단순한 회상 자료의 보존에 그치지 않으며, 감정 환기, 정서 조절, 지속적 유대, 의미 재구성의 차원을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추모 서비스는

형식과 매체 측면에서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나, 정서적 피드백, 장기적 동반성, 관계 지속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AI 감성 추모디자인 전략을 네 가지 차원으로 제안하였다. 감정 환기 전략은 사용자가 부담이 크지 않은 방식으로 기억에 접근하도록 돕고, 정서 조절 전략은 애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의 흔들림에 대응하도록 한다. 또한 지속적 유대 전략은 반려동물과의 관계감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며, 의미 재구성 전략은 사용자가 상실과 기억의 가치를 새롭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점에서 AI는 단순히 반려동물을 재현하는 기술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사용자의 감정 정리, 관계의 연속성, 의미 형성을 지원하는 디자인 매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반려동물 상실에 관한 논의를 심리적 현상 차원에서 나아가 디자인 전략 차원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AI 기반 추모 서비스의 설계 방향이 기술적 재현성보다 보호자 중심의 경험에 놓여야 함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감정 환기, 정서 조절, 지속적 유대, 의미 재구성이라는 네 가지 전략 차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서비스 블루프린트 설계와 인터페이스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한 구조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5-2. 한계 및 향후 연구

본 연구는 문헌분석과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설문조사, 프로토타입 테스트와 같은 실증적 방법은 포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보호자의 실제 반응과 사용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보호자 전체의 실제 경험을 일반화한 결론이라기보다, 문헌과 사례를 바탕으로 도출한 디자인 전략의 제안적 성격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은 전략적 차원의 틀에 해당하며, 완성된 제품이나 서비스 모델을 직접 제시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인터페이스 구성, 서비스 흐름, 상호작용 프로토타입과의 연계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더불어 AI 추모 서비스는 과도한 의존, 지나친 사실성,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같은 윤리적 문제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정교한 논의 역시 후속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한다.

향후 연구는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될 수 있다. 첫

째,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실제 정서 경험과 추모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네 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서비스 블루프린트와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이를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 나타나는 반려동물 추모 방식과 애도 표현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본 연구의 적용 가능성과 문화 간 확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남현아, 김승현, “생성형 AI 기반 반려동물 추모 서비스 디자인 연구”, 예술디자인학연구, 28, 2025, pp.78-88.
2. Archer, J., “Why do people love their pets?”,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Vol.18, No.4, 1997, pp.237-259.
3. Barrett, L. F., “Constructed emotion theory”, *Emotion Review*, Vol.1, No.1, 2009, pp.427-431.
4. Brubaker, J. R., Hayes, G. R., & Dourish, P., “Beyond the grave”, *The Information Society*, Vol.29, No.3, 2013, pp.152-163.
5. Folkman, S., & Moskowitz, J. T., “Positive affect and coping”, *American Psychologist*, Vol.55, No.6, 2000, pp.647-654.
6. Gibbs, M., Meese, J., Arnold, M., Nansen, B., & Carter, M., “Funeral and Instagram”,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Vol.18, No.3, 2015, pp.255-268.
7. Kübler-Ross, E., 『On Death and Dying』, Macmillan, 1969.
8. Neimeyer, R. A., 『Meaning Reconstruction and the Experience of Los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1.
9. Norman, D. A., 『Emotional Design』, Basic

Books, 2004.

10. Packman, W., Field, N. P., Carmack, B. J., & Ronen, R., "Continuing bonds and psychosocial adjustment in pet loss", *Journal of Loss and Trauma*, Vol.19, No.3, 2014, pp.224-238.
11. Stephens, N., Hill, R. P., & Bergman, K., "Symbolic memorialization after the death of a companion animal",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64, No.3, 2011, pp.306-312.
12. Wang, X., "Design of an Intelligent Pet Memorial System Based on Affective Computing", *HCI 2025, LNCS 15768*, Springer, 2025, pp.290-307.
13. www.ripforpets.ie
14. www.thepetmemorial.net
15. remembrancepets.com
16. stillmydog.com